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印尼 기업 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콘텐츠 플랫폼 기업 누온(NUON)과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협약은 문화콘텐츠, 투자, 인력교류 분야 협력 강화다. 양측은 정기 상호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누온은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기업인 텔코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SK텔레콤이 합작해 설립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현재 음악·게임·웹툰·애니메이션·이스포츠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육성 중인 광주의 애니메이션·게임·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누온의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TP, 기술시장 역량 강화 업무협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9일 한국기술거래사회, 한국광기술원과 '기술거래시장 관련 기술협력 및 공동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공공-민간영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광주·전남지역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기관별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기관별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기술이전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기술이전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관련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소영 기자



굳건한 1위 '서울의 봄'... '싱글 인 서울' 2위로 출발

영화 '서울의 봄'이 8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로맨틱 코미디 '싱글 인 서울' (사진)은 '서울의 봄'을 넘지 못하고 2위로 출발했다.

'서울의 봄'은 29일 34만6747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관람했으며 누적 관객수는 271만1455명으로 박스오피스 정상에 지켰다. 신작 공세를 이겨낸 '서울의 봄'은 오는 주말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약 26만4700명으로 2위 '싱글 인 서울' (약 4만5000명)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 영화는 '비트' (1997) '태양은 없다' (1999) '아수라' (2016) 등을 만든 김성수 감독 신작으로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뒤 같은 해 12월12일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다. 하나회는 전두환이 주축인 군대 내 사조직이었다. 황정민은 전두환이 모티브가 된 캐릭터 '전두광'을, 정우성은 장태완 장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물인 '이태신'을 연기했다. 박해준이 전두광과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는 '노태건'을 맡았다. 이와 함께 이성민·김성균·정만식 등이 출연했다. 이주영 기자

배우 임수정과 이동욱이 주연한 '싱글 인 서울'은 공개 첫 날 5만1994명이 봐 2위로 출발했다. 이 작품은 책 편집자인 '현진'과 학원강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영호'가 함께 책을 만들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수정이 현진을, 이동욱이 영호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이상아·이미도·장현성·이습·김지영 등이 출연했으며 연출은 '레드캣' (2014) 등을 만든 박범수 감독이 했다.

3위는 개봉 첫 날 2만5443명이 본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이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 작품은 같은 반 학생인 '미나토'와 '요리'가 학교 폭력 문제로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 작가로서 일본 최고로 손꼽히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각본을 썼고,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을 만들었다.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4위 '극장판 파워 디지몬 더 비기닝' (8804명·첫 진입), 5위 '프레디의 피자가게' (6717명·누적 58만명) 순이었다.



봉선지역아동센터, 빛나는 우리들의 축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봉선지역아동센터(센터장)'가 봉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빛나는 우리들의 축제'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올해 대한체육회 후원으로 국학기공 스포츠 교실에서 기공수업을 통해 명상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떡볶이', '달라라 춤추는 하루' 수업을 진행했다.

그 외 합창, 수화, 칼리바, 치어리더, 폼새, 음악출렁기 등 자기계발을 선보였다.

윤숙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집단활동을 본격 진행하며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내년에도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인턴 기자



광주은행 노조, 한인 후손 한복 후원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박만)은 최근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항희 광주학생독립연맹회장, 김재기 전남대 교수, 류혜경 전남여중고 총동창회장(서광병원장) 등 관계인들이 참석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1905년 대한제국을 떠나 멕시코·쿠바에 정착했던 한인동포 1세대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고국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금번 한복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한복 보내기 운동은 한복 300여벌을 모아 독립운동유지·후원한 기록이 확인된 멕시코 메리다 한인후손회와 쿠바 호세마르티 한인후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일고 100주년 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사단법인 광주일고100주년기념사업회는 지난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학업 우수 학생 10명과 광주일고 야구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광주일고 100주년 기념사업회 제공



화순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화순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에는 화순읍 주요 변화가변 아닌 무단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광주 광산구 애자람그룹홈 아이들, 52만원 기부

광주 광산구 송정1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애자람그룹홈'의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훈훈이 모은 저금통을 털어 기부했다. 광산구 제공



한창훈 광주경찰청장, 남부서 소통현장 간담회

30일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이 광주 남부경찰과 백운지구대를 방문해 소통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 남부경찰 제공

BTS 다큐멘터리 내달 공개... 콘서트 실황 주목

글로벌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방탄소년단 모뉴먼트: 비욘드 더 스타'를 내달 공개하는 가운데 기존 소개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다큐멘터리와 콘서트 실황도 주목받고 있다.

'제이홉 인 더 박스'는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제작 과정은 물론, 세계 최대 뮤직 페스티벌 '롤라 팔루자'에 대한민국 뮤지션 최초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슈가: 로드 투 디데이'는 슈가의 솔로 앨범 '디-데이' 작업기와 음악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앤더슨 팩, 스티브 아오기, 할리, 고(故) 사카모토 류이치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는 팬데믹 이후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첫 대면 콘서트를 담은 라이브 필름이며 LA 최대 규모의 스타디움을 매진시킨 5만여 명의 관객들의 반응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 모뉴먼트: 비욘드 더 스타'는 12월 20일 디즈니+에서 단



BTS Monuments: Beyond The Star

12월 20일 Disney+

디즈니+에서 방탄소년단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다큐멘터리와 콘서트 실황도 제공한다. 뉴스

독 공개된다. 매주 수요일 2편씩 총 8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이주영 기자